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제106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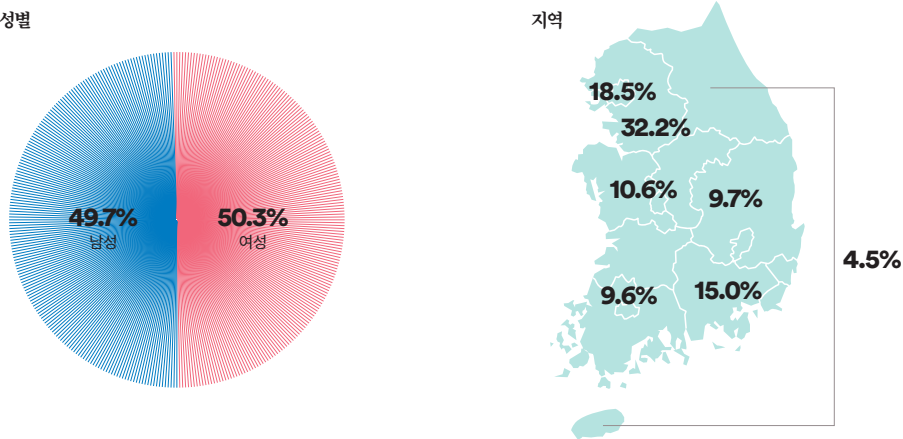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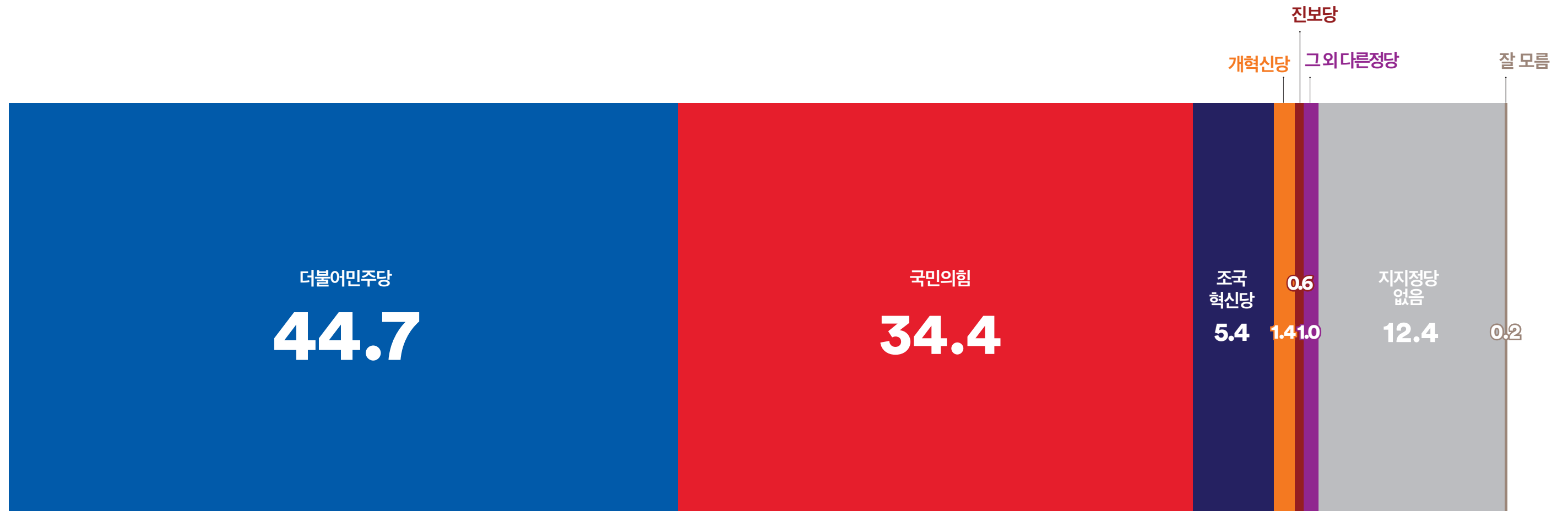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비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10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10	100.0	1010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2	49.7	500	49.5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8	50.3	510	50.5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7	15.5	155	15.3					0.98
응답률	12.8% [총 통화수도 7,887명]			30대	152	15.0	150	14.9					0.98
조사기간	2025년 3월 14일 ~ 3월 15일(2일간)			40대	176	17.4	177	17.5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9	19.7	198	19.6					0.99
				60대	177	17.5	178	17.6					1.00
				70세 이상	149	14.8	152	15.0					1.02
			지역	서울	187	18.5	189	18.7					1.01
				인천·경기	325	32.2	326	32.3					1.00
				대전·세종·충청	107	10.6	109	10.8					1.01
				광주·전라	97	9.6	98	9.7					1.01
				대구·경북	98	9.7	98	9.7					1.00
				부산·울산·경남	151	15.0	148	14.7					0.98
				강원·제주	45	4.5	42	4.2					0.93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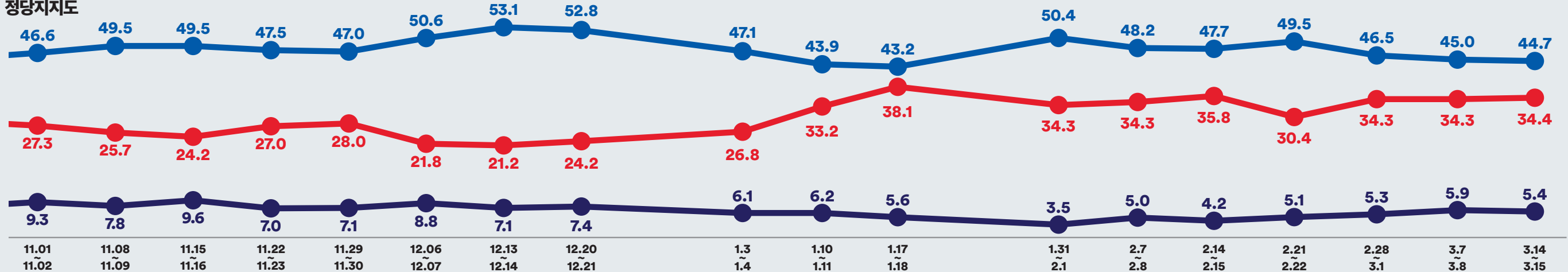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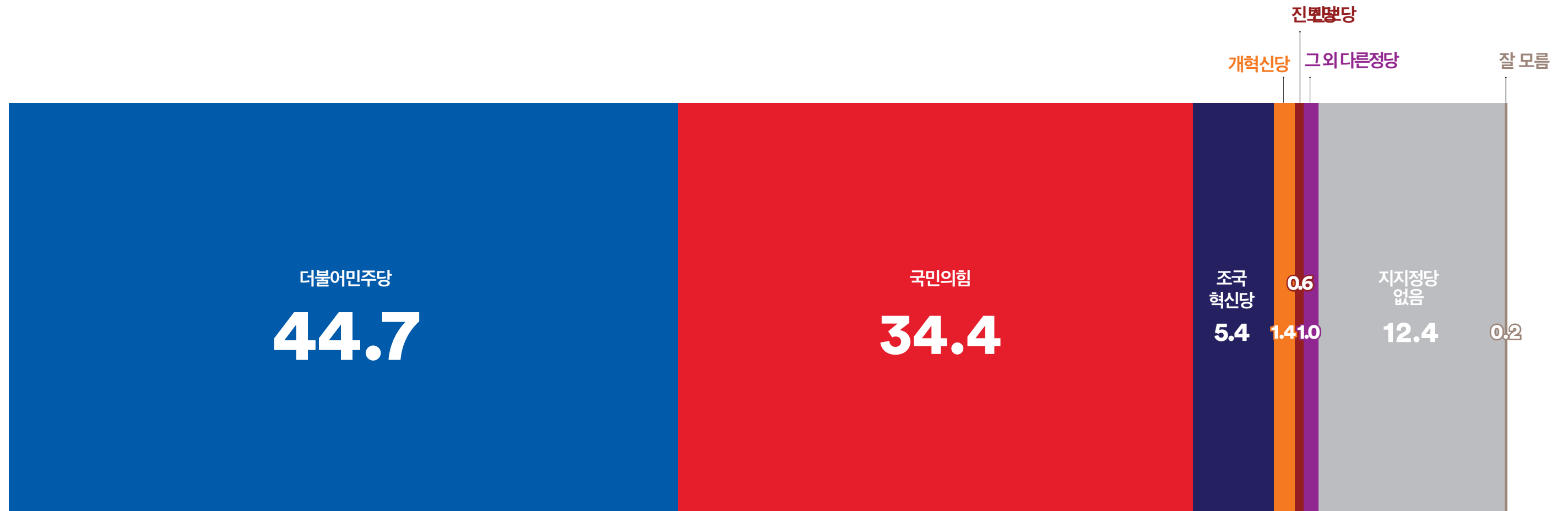
105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3%p 하락, '국민의힘' 0.1%p 상승, '조국혁신당' 0.5%p 하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0.3%p (지난 조사: 10.7%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5.7%p (지난 조사: 16.6%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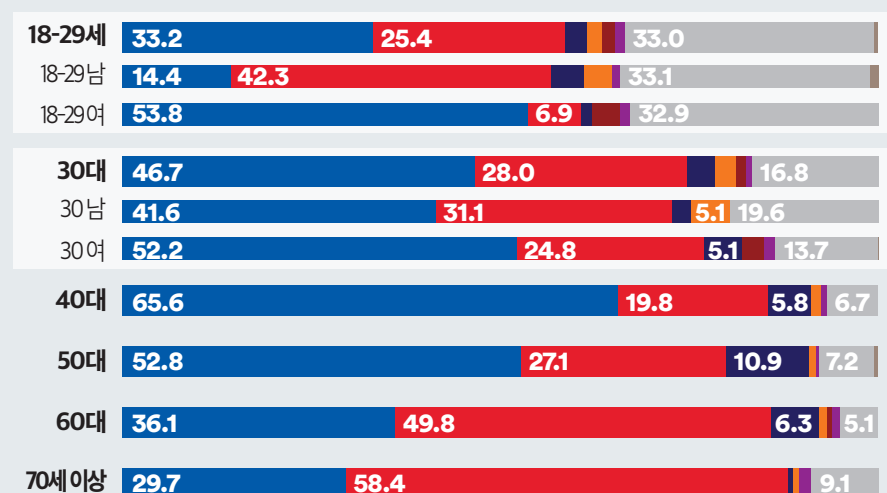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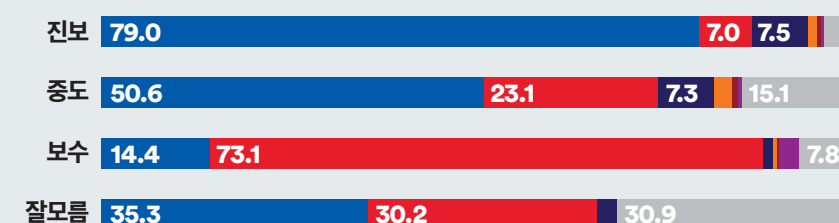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PK,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0.6%, '국민의힘' 23.1%, '조국혁신당' 7.3%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7.5%p(지난 조사: 2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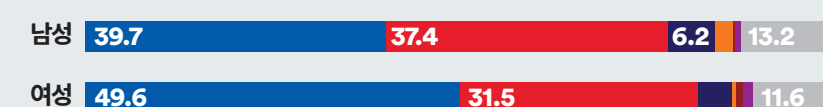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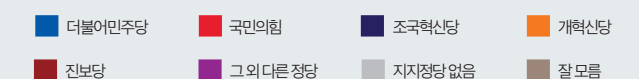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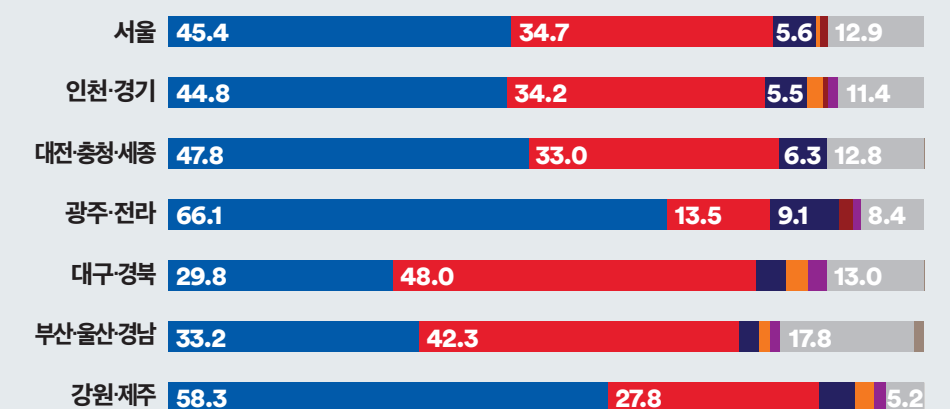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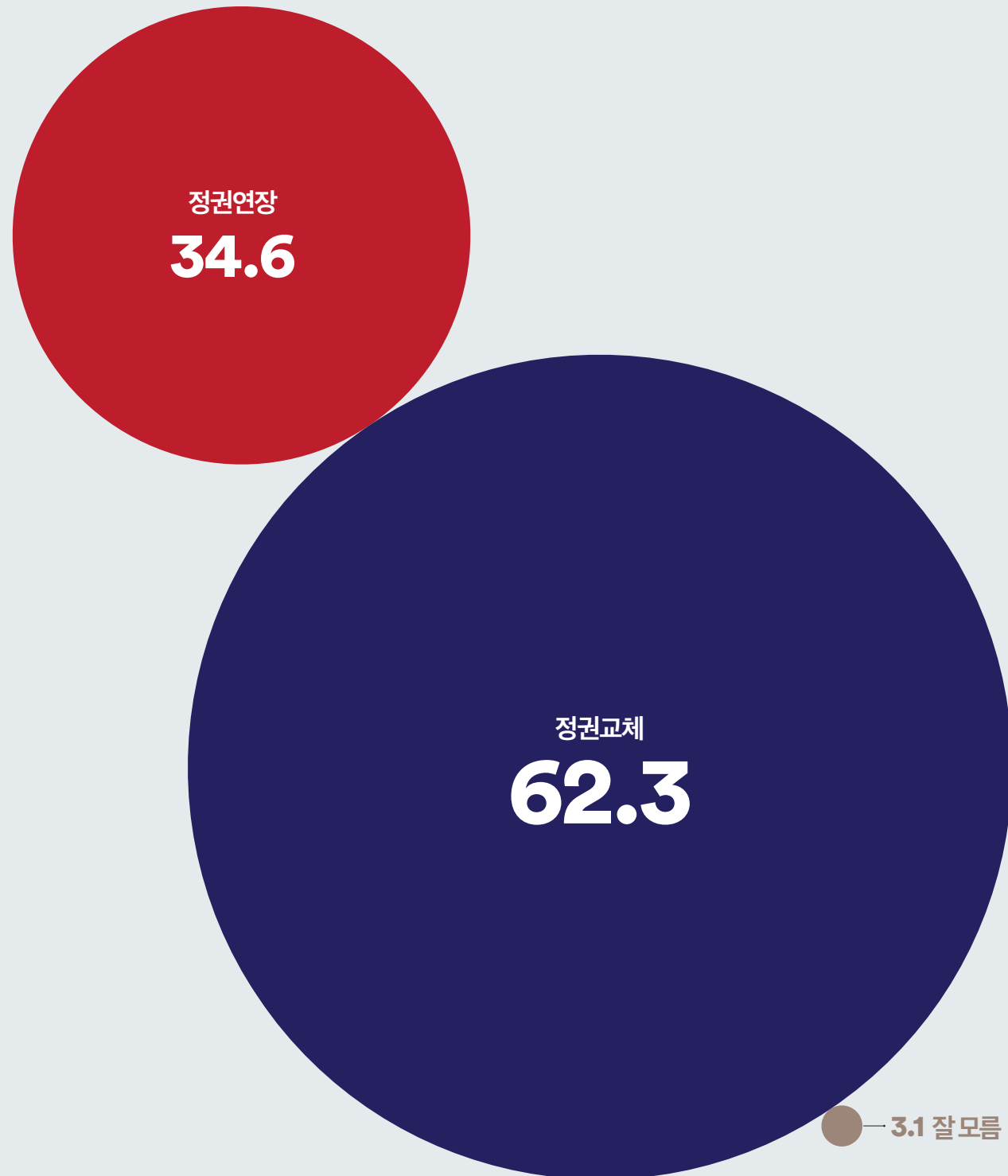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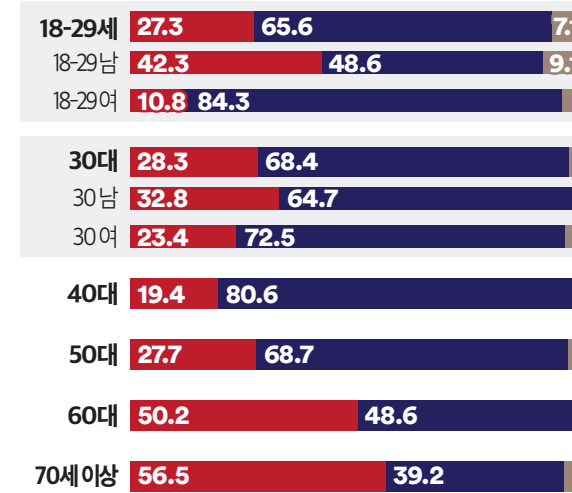


Q. 다음 중 바람직한 차기대선 결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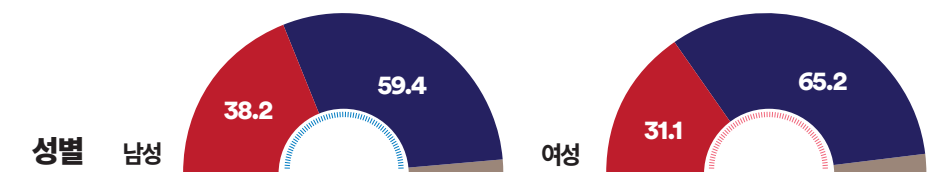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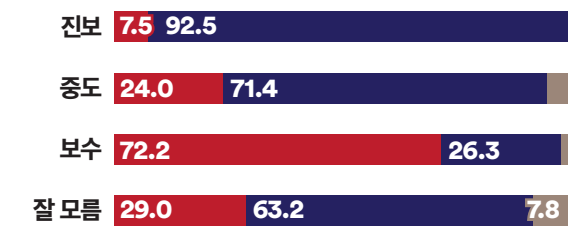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은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27.7%p)
50대 이하 응답층과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정권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남성층과 60대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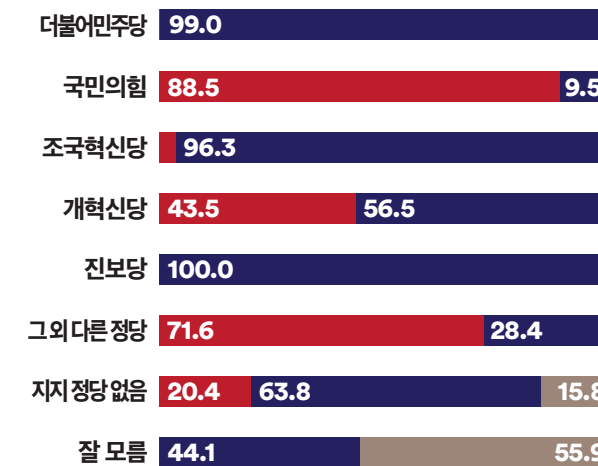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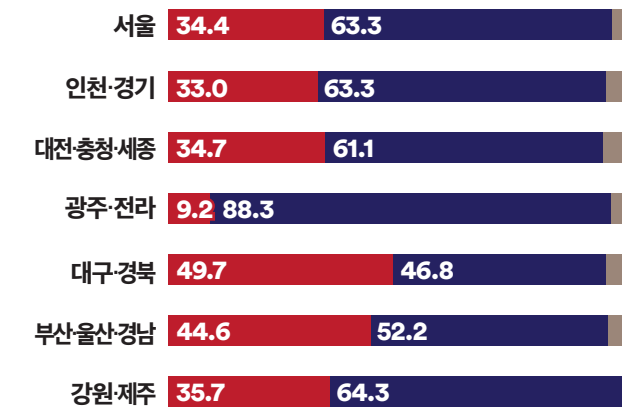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정권연장 정권교체 잘 모름

Q.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적절하다

37.5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2025년 3월 7일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문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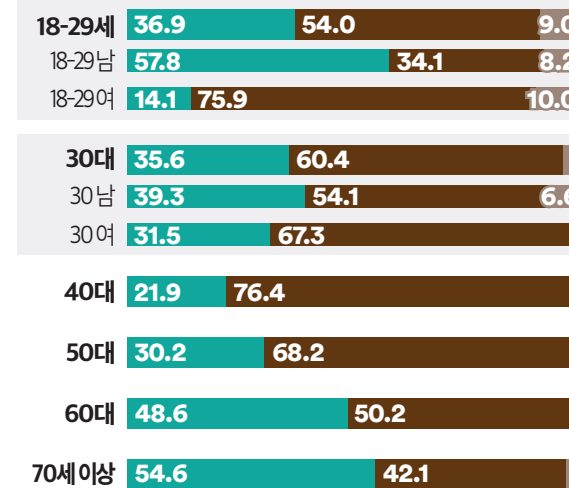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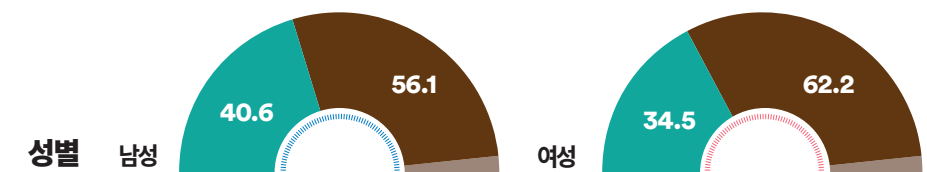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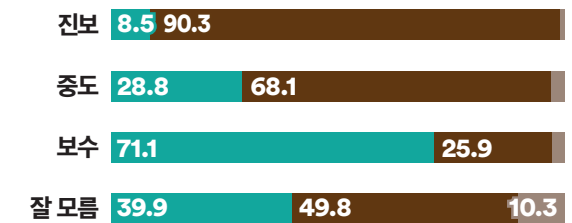
3.3 잘 모름

10명 중 6명 정도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1.7%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적절하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89.6%), 보수층(71.1%)에서 우세를 보임
진보층(90.3%), 중도층(68.1%), 무당층(53.4%)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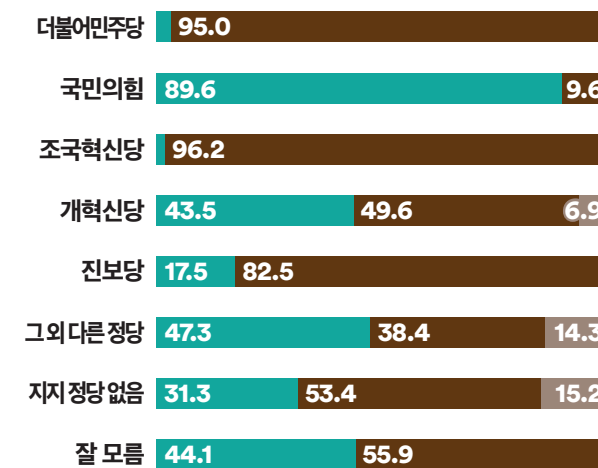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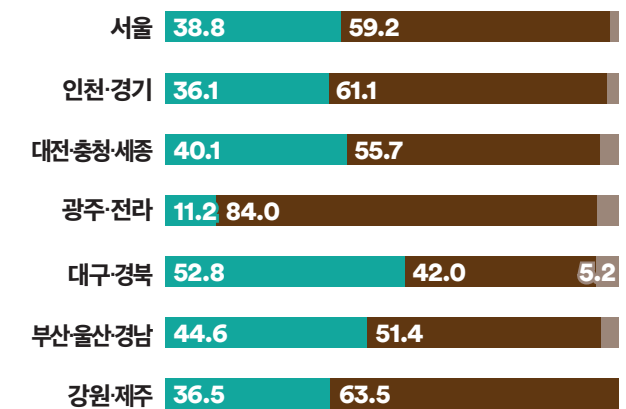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잘 모름

Q.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적절하다
37.1

“수사팀 의견을 포함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발언 중]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시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인 만큼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5년 3월 13일, 즉시항고 포기 관련 입장문 내용 중]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적절하지 않다
59.8

3.1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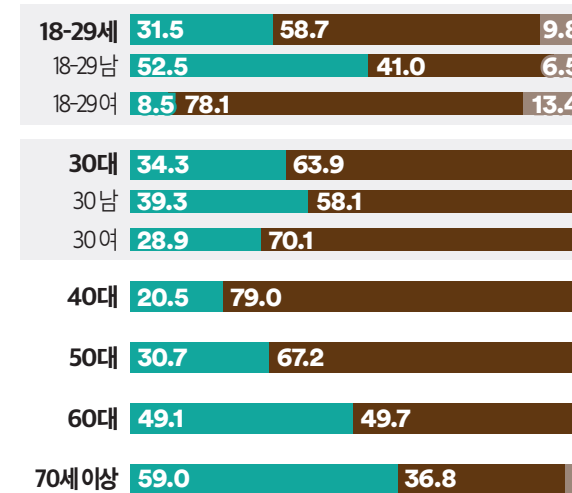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부적절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2.7%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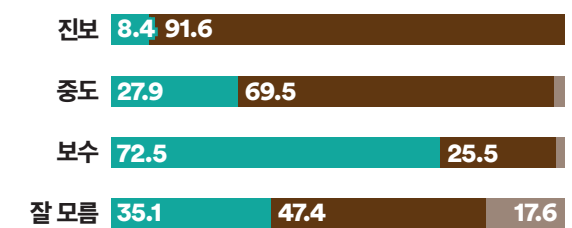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적절하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90.3%), 보수층(72.5%)에서 우세를 보임

성X연령을 살펴보면 40대 여성층의 부적절 응답(80.8%)이 가장 높고, 20대 여성(78.1%), 40대 남성(77.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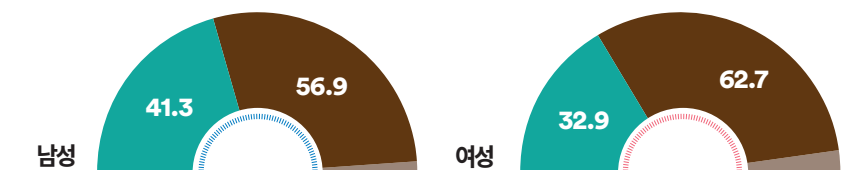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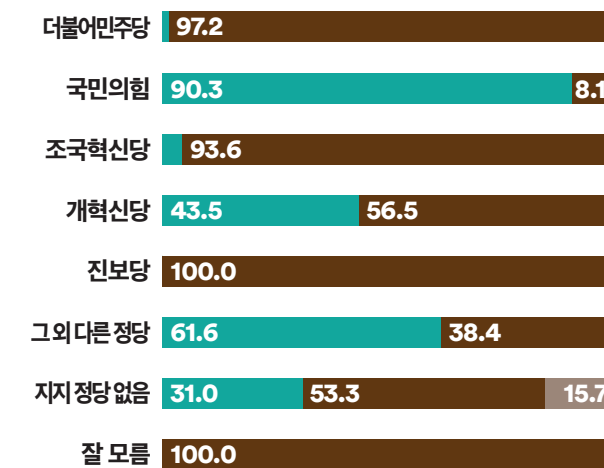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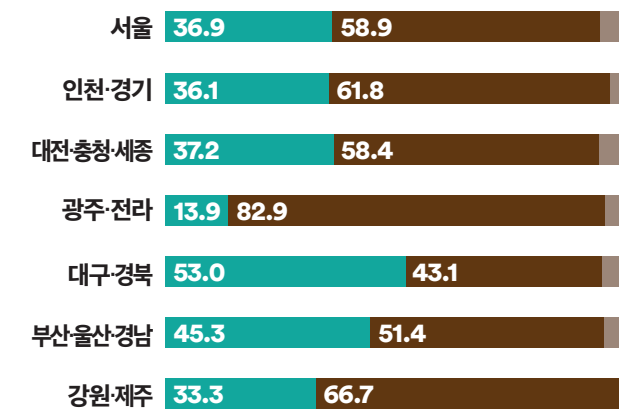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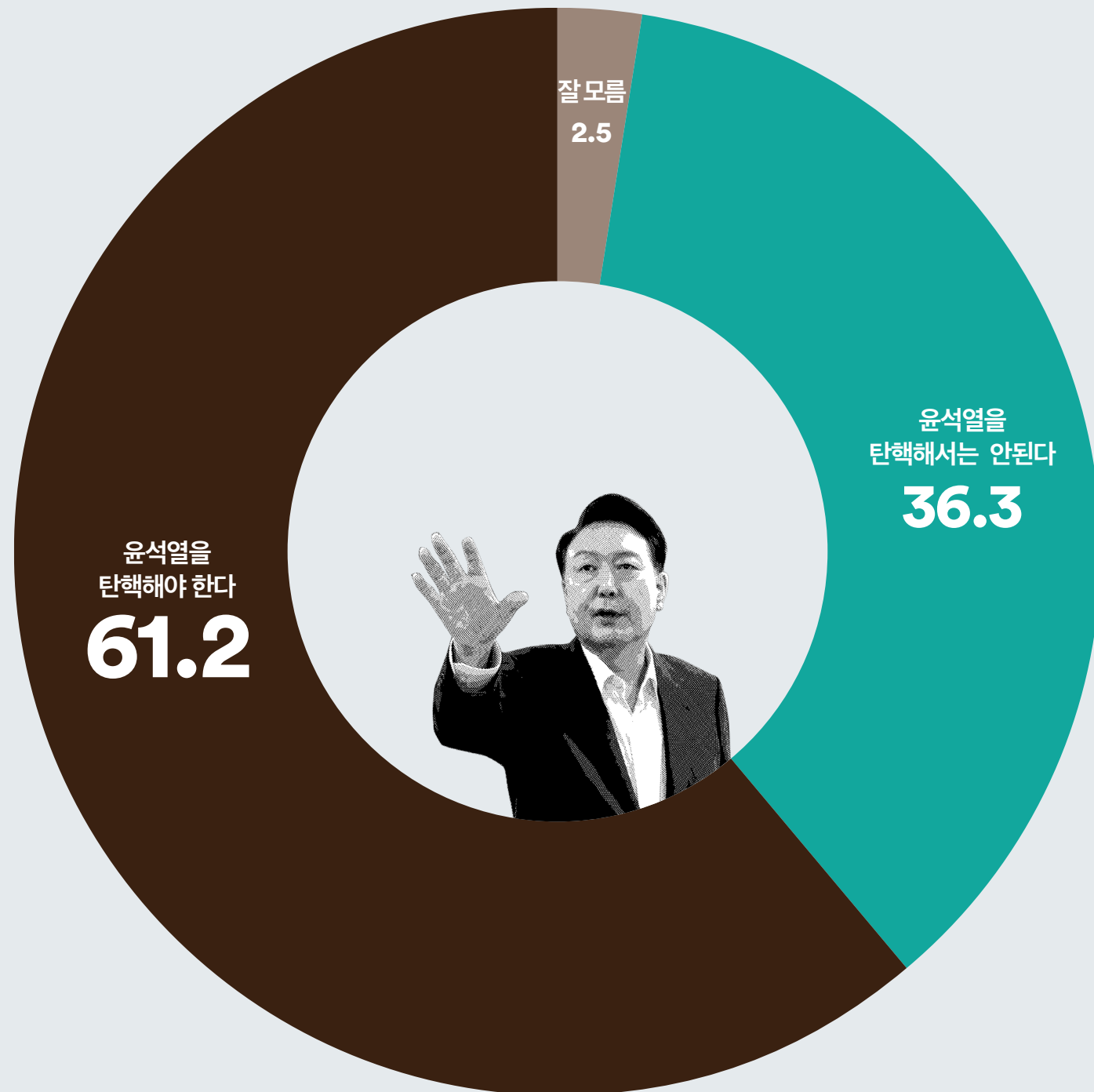


권역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잘 모름

Q. 윤석열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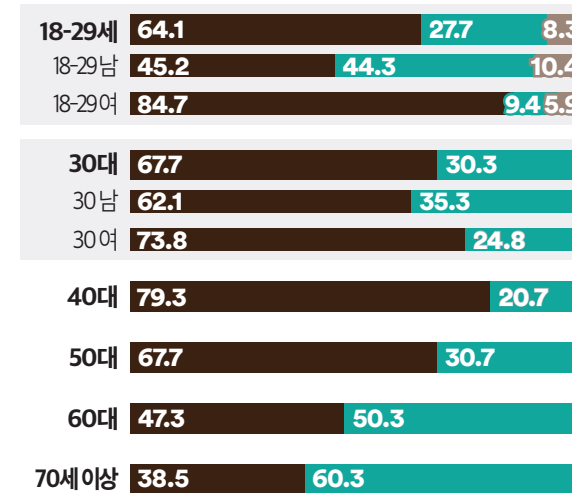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61.2

윤석열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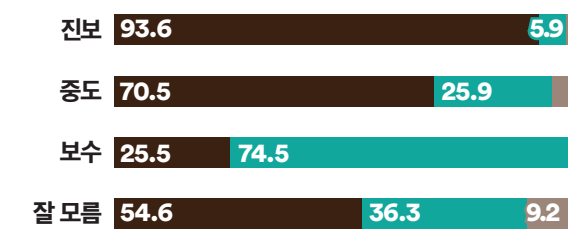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4.9%p)
50대 이하 응답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93.6%), 중도층(70.5%), 무당층(62.3%)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TK와 70세이상 응답층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60대 응답층과 18-29세 남성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성X연령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층의 부적절 응답(84.7%)이 가장 높고, 40대 여성(79.6%), 40대 남성(78.9%) 순으로 나타남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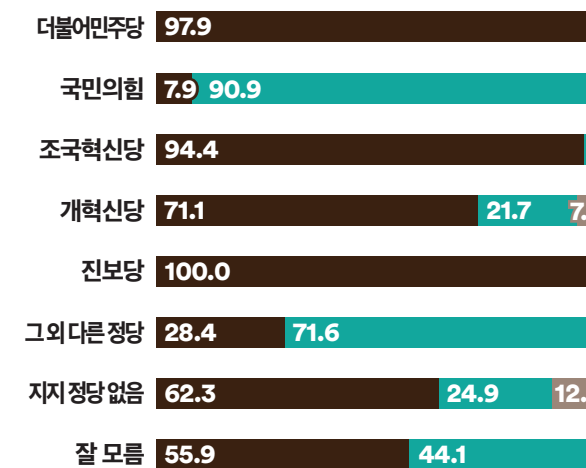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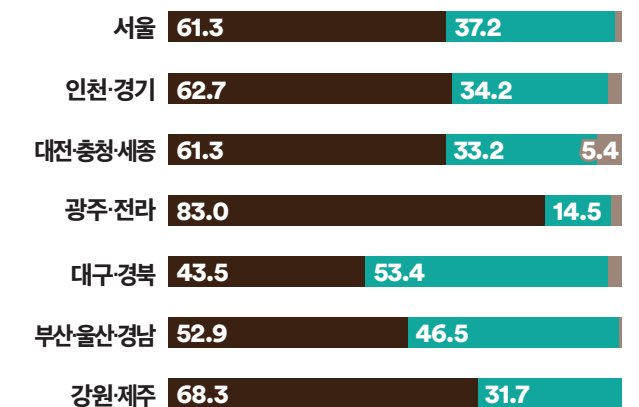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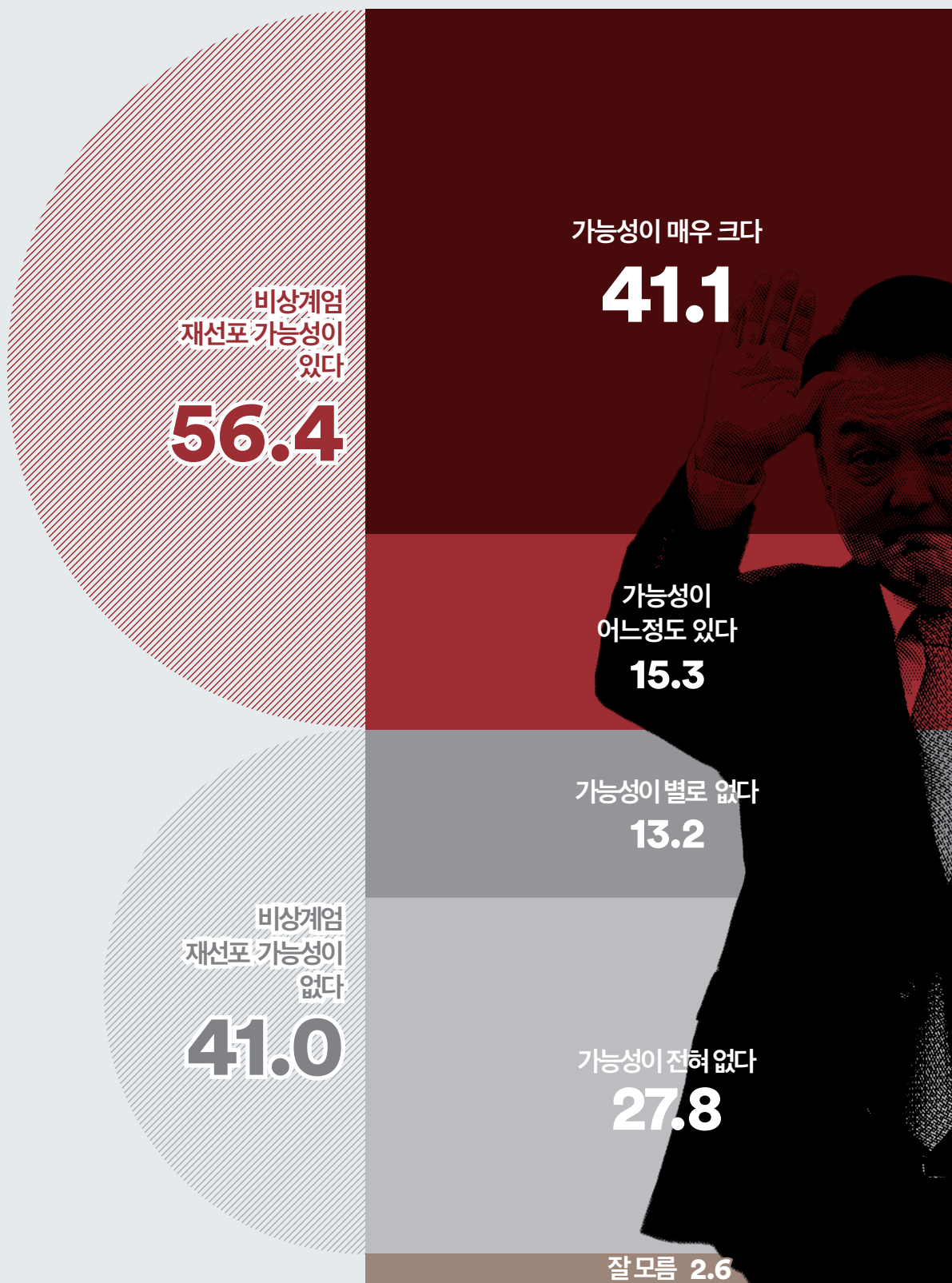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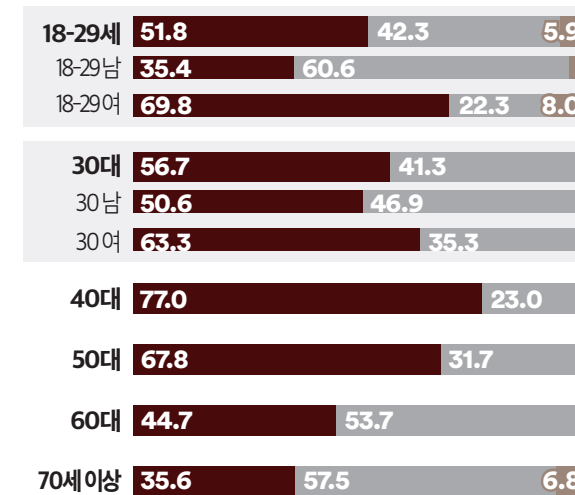
■ 탄핵해야 한다 ■ 탄핵해서는 안 된다 ■ 잘 모름

Q. 탄핵심판이 기각 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 계엄령 재선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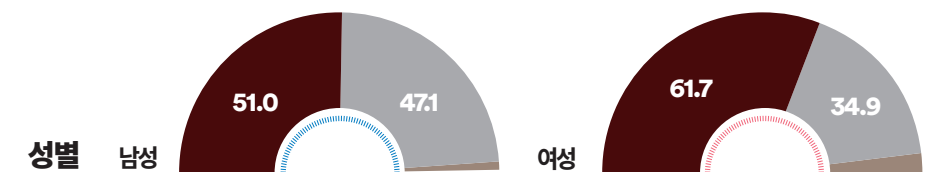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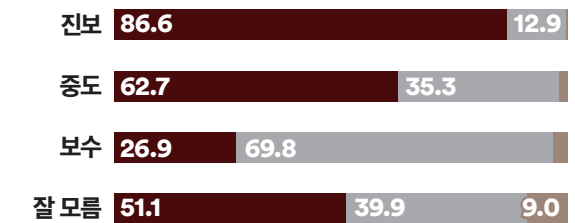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15.4%p)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 50대 이하 응답층, 남·녀 모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60대 이상 응답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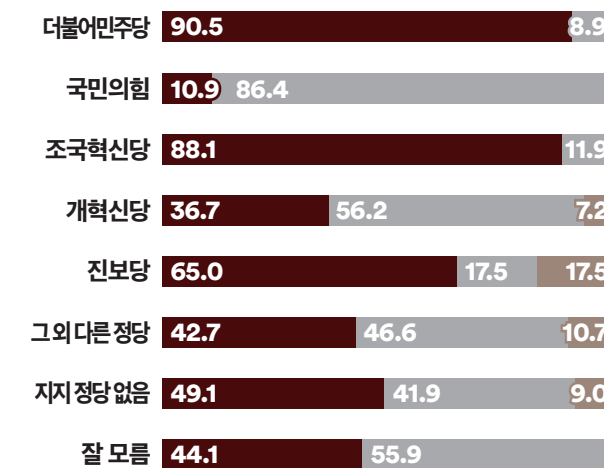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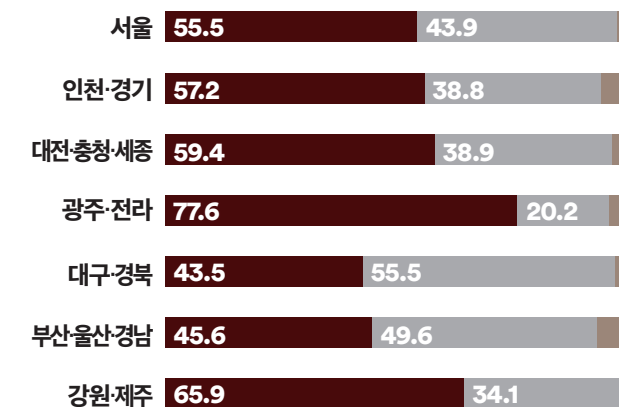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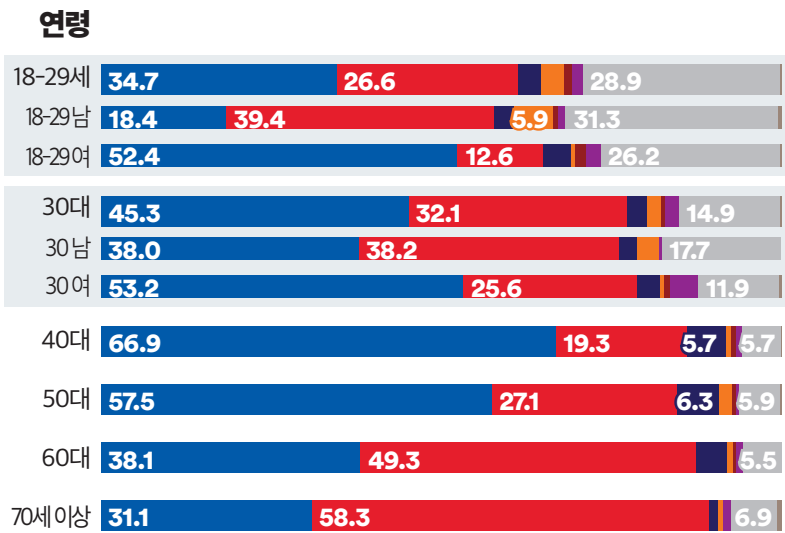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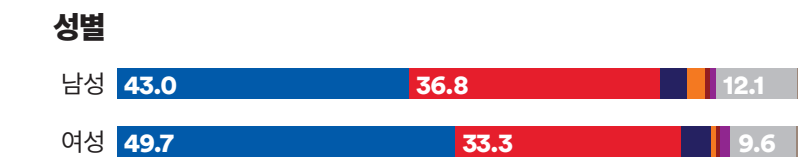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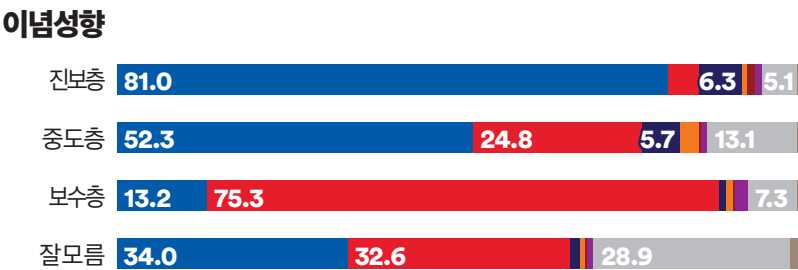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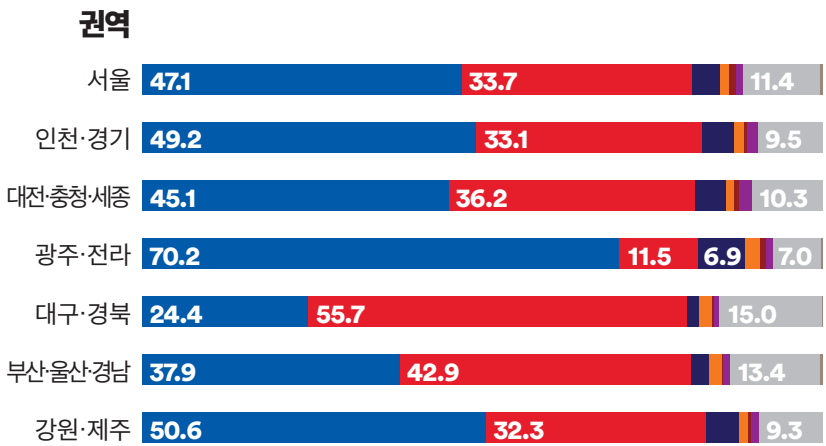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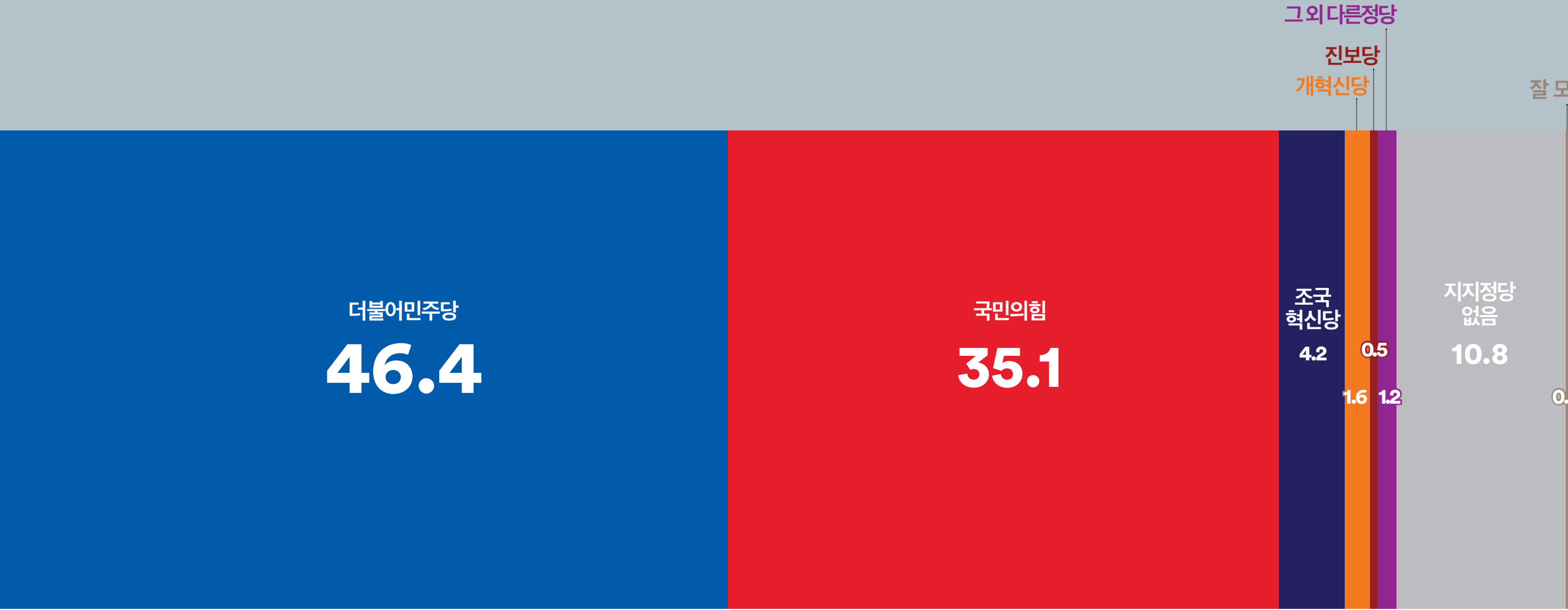


권역



■ 가능성이 있다 ■ 가능성이 없다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3_05
